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인사 드립니다.

기도해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네팔의 사역들이 주님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네팔은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좀 있으며 낮에는 많이 더워서 반팔을 입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이제 많이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로에 신호등도 생기고 청소하시는 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거리가 없어서 남성들은 해외로 일하러 나가서 여성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이 네팔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나라가 바로 서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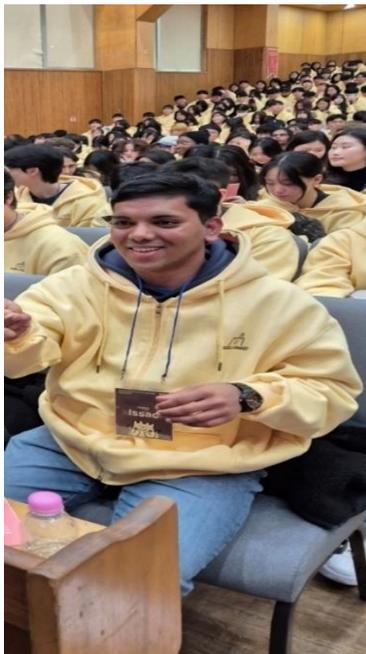
아가페 사역

아가페 안에 모든 사역들이 잘 운영되어 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가페 아이들 성장하여 첫 번째 주신 아들 이삭이는 한국에 한동대학교 생명과학과2월24일에 입학 하였습니다. 저 또한 이삭이 한국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잠시 한국에 방문하고 다시 네팔 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삭이가 고3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운데 한동대학교 100%장학생으로 입학 하였습니다 입학식날 외국인 학생 대표로 한 동 입학선서문과 명예선서문을 낭독하는 기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이삭이는 한국학생들과 적은 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홀 러 서서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며 포항에서 주일마다 기쁨의 교회 청년부에 등록해서 교회 생활도 하고 네팔모임에서 성경공부도 열심히 한다며 소식을 전했으며 한국에 금 요 철야 예배와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로우면 너무 좋다며 저절로 감사함과 눈물이 나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해서 한참 울었으며 하나님께서 갓난아기였던 이삭이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멋진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에스더와 영이는 올해 12학년 (고3)을 3월말이 마치고 네팔 고3 수능시험을 4월24일에 보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대학 진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에스더도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꿈을 품고 공부를 하는 모습들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에스더는 적응력도 좋고 언어구사도 잘해서 동시통역을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이삭 이랑 같은 대학에 가서 함께 의지하며 공부를 하면 좋게 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이는 여전히 탁구를 열심히 하는 탁구 선수입니다. 지금은 네팔 여자전체 5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대표로 선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5시부터 운동을 시작하고 잠간 쉬는 시간에는 수능 시험공부를 하고 다시 운동 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영이는 수능 잘 봐서 네팔에 대학 스포츠과를 다니며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동생들도 중3 고1들이 되었으며 언니 오빠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홉스 탁구교실 소식입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가페 교회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열지 못하고 식구들과 교회를 찾아오는 아이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이후로 네팔에 외국인들이 점점 전도를 하기 힘들고 저희들이 전도하다 걸리면 7일안에 추방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일들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 주신 사역인 탁구교실을 운영하며 그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는 탁구교실이 되도록 노력하며 선수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하며 기도로 섬기려고 노력하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운동을 하고 훈련을 받는 국가대표 선수들, 지금 막 배우는 꿈나무들,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복음의 씨앗이 뿌려 지길 소원하며 최선을 다 하며 운영하는 곳입니다. 지역주민 센터 에서도 응원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의 건강 생활을 통하여 활기찬 지역주민들이 되도록 주민센터 소장님과 3개월 생활인 탁구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구름을 만들어 두 시간씩 배우고 중간 중간 국가대표 선수들 홉스탁구 교실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탁구교실에 3명의 코치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께서 하시기에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은 이곳에 탁구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모두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곳에서 네팔에 탁구를 사랑하고 열심히 배워 탁구선수들이 배출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오리라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용하는 탁구교실이 교회를 하며 어려운 아이들 방과 후 공부반을 하고 컴퓨터 교실을 하던 곳이라 장소가 협소한데 많은 탁구인들이 이 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줌도 좋고 운동하는 자들이 즐겁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넓혀 지길 소원합니다.

한국에 방문해서 이삭이가 입학하기까지 필요로 한 모든 것 들을 채워 주셔서 준비하고 입학시킬 수 있었습니다. 믿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도와 주시는 동역자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1. 아가페 고아원사역 교회사역 탁구교실 사역을 돕고 있는 현지 스태프들과 코치들이 예수님 안에서 중심이 되어 기도하며 은혜와 사랑 가운데 협력하여 나아가길
2. 아가페 안에서 자라난 이삭이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한국 한동대학교 생명과 학과에 입학 하였습니다. 좋은 교수님들과 친구들을 만나서 한국문화를 잘 적응하며 배우고자 하는 모든 학문을 잘 익히고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이번 학기에 한국어로 수업을 듣는 과목을 이해 잘 하고 지혜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3. 아가페 교회 안에서 탁구교실을 하고 있는데 선수들과 많은 아이들이 훈련을 받을 때 공간이 적고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고 물건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마음껏 움직이지 못해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운동할 생각을 못하고 교회생각만 해서 지었는데 다행히 교회 마당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 탁구교실을 확장하여 많은 선수들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스포츠센 타를 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 할 수 있는 곳을 올해 재정이 채워져 진행할 수 있도록
4. 네팔이 안정되고 네팔에서 사역할 때 외부세력과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네팔 전지역이 흘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곳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5. 아가페 홈 에스더 영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여 이번 4월에 고3수능시험을 합격하여 대학에 갈 수 있도록
6. 저희 아가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물질로 여러 모양으로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 잊지 않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 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년4월5일

장 언순 고연희 선교사 올림